

혁신과 식품이 만나는 곳  
국가식품클러스터



## 업종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차세대 식품복합단지 건설

국가식품클러스터의 규모는 232만㎡로, 업종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시설, 물류시설, 연구시설, 지원시설, 외투자지역 등 기능별로 구역을 나누는 차세대 식품복합단지로 건설됩니다.

- 산업시설
  - 연구시설
  - 공원
  - 지원시설
  - 물류시설
  - 폐수·폐기물 처리장
  - 상업시설
  - 주거구역
  - 저류지
- 식품제조업지역
  음료제조업지역
  연관업종지역
  2015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(FIZ)



## 식품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6개 기업지원시설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식품 R&D센터와 3개 기업지원시설을 지원합니다.

### 식품품질안전센터

- 식품안전 관련 9개 법률 지정·검사 수행
- 맛·향 등 기호적 품질관리



### 파일럿플랜트

- 글로벌 수준의 파일럿플랜트를 구축하여
- 새로운 제품의 시제품 테스트 및 시판품 제조



###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

- 기업의 식품기능성 평가과정
- One-Stop 지원



### 국가식품클러스터



### 식품벤처센터(임대형공장)

- 기술기반의 소기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
- IT·나노 등 신기술 융복합기업 집중육성

### 식품패키징센터

- 패키징 신기술 중심의 R&D 수행
- 식품 패키징 분석·시험 및 컨설팅



###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

- 입주기업·기관 및 글로벌기업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
- 입주기업·연구소 One-Stop 종합지원



##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'임시연구소(R&D Labs)' 운영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6년 하반기 산업단지 완공 전에도 산학연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인근 2개 대학 내에 임시연구소 2곳을 운영하면서 식품기업 등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인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, 한국식품연구원 등 정부·국책 R&D기관들과 협력하여 식품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.



# 국가식품클러스터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과 수출중심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식품전문국가산업단지입니다. R&D센터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One-Stop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식품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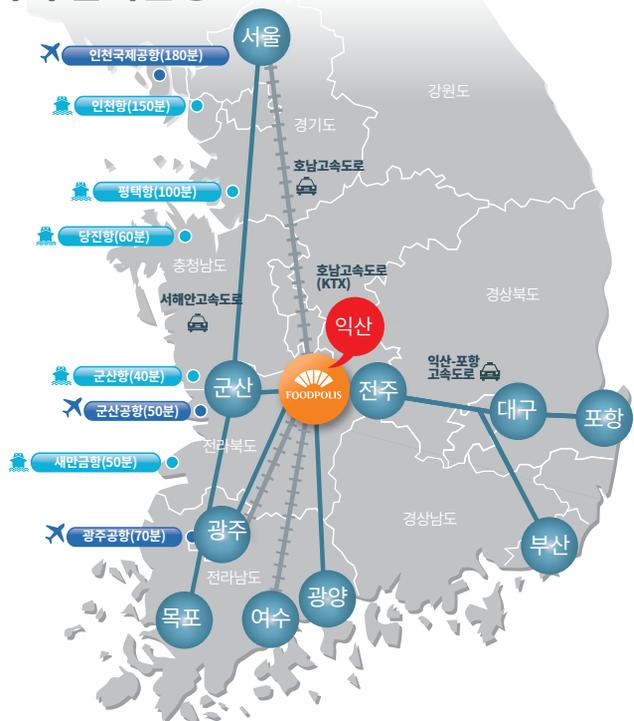
## 식품산업 전 과정 One-Stop 지원



## 국내외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입지환경

우리나라는 아시아·태평양 식품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, 현재 세계 50여개국과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외의 주요 식품소비자, 공항 및 항만 등에 접근성이 좋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(Hub)로 조성되어 국내외 식품기업들이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



# 높아지고 있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의 투자관심

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 국내외 100여개 식품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를 맺는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중 일부 국내기업은 분양계약을 이미 체결했고, 미국·중국·체코·케냐 등 해외기업은 투자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.

## 투자 규모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입주기업은 투자 및 고용 규모, 기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 및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대 50년간 부지임대료 감면혜택과 외국인 고용인력이 30% 확대됩니다.

### 국내기업

- 국 세 : 법인·소득세(5년간 100%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)
- 지방세 : 취득세(100% 면제) / 재산세(5년간 100% 면제, 2년간 50% 감면)
- \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
조건 : 기업과 지자체간의 MOU 체결 /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 / 총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/ 상시고용 20인 이상

